

유네스코 등재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국악편

1. 종묘제례악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사후에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

종묘에서 베풀어지는 제사 의식, 조선 시대 나라 제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기에 종묘대제라고도 함. 조선 시대에는 춘하추동의 첫 달과 그해 12월 선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일제때 중단되었다가 1971년부터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대제를 올리고 있다.

2.판소리

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소리: 노래 즉 다수의 청중들이 모인 놀이판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는 형식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 장단에 맞추어 소리(노래)·아니리(대사설명)·발림(몸짓,동작)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엮어가는 극적 음악.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이다.

본래 12마당이었으나 현재 <춘향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홍보가> 5마당만이 전해짐. 고수 : 추임새(열쑤, 좋다, 잘한다 등) 소리꾼의 흥을 북돋아 주기 위함.

3.남사당 놀이

남사당패란 최소 40명에 달하는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연예인단을 말하며 그 우두머리는 꼭두쇠라고 한다. 남사당놀이란 남사당패가 조선 후기부터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농어촌을 돌며 농악·대접돌리기(버나)·땅채주·줄타기·탈놀이·꼭두각시놀이 등 6가지 놀이를 관객 앞에서 선보였던 것을 말함.

4.처용무

궁중나례로 처용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오방처용무'라고도 한다.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살던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전염병을 옮기는 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처용무는 5명이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향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추는데 동은 파란색, 서는 흰색, 남은 붉은색, 북은 검은색, 중앙은 노란색이다. 남자가 추는 춤으로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춤이다.

5.농악

농촌에서 집단노동이나 명절 때 등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연주되는 음악. 풍물·두레·풍장·굿이라고도 한다. 김매기·논매기·모심기 등의 힘든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로를 덜며 나아가서는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농악은 팽과리·징·장구·북·소고(버꾸)·태평소·나발등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그 외에 양반·무동·가장녀·농구·집사·포수·창부 등의 가장무용수들의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기악 연주를 담당하는 농악수들을 앞치배라 하고, 무용과 익살을 맡은 가장무용수들을 뒷치배라 부른다.

6.아리랑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민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정서를 담은 노래

우리나라 3대 아리랑: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남북한은 물론이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에게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민족의 노래라고도 불린다.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서 가창 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5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7.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해안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민속놀이로 우리 고유의 정서와 말과 리듬이 잘 담겨있는 무형 문화유산이다. 각 지역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는 어휘와 반복되는

후렴, 리듬의 강약, 변화무쌍한 의성어와 몸동작으로 다양성을 보여 준다.

기록에 의하면 강강술래는 임진왜란 때 일종의 군사 전략으로 활용되었다고 함.

강강술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밤에 열렸는데,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민속놀이.

8.가곡

소규모 국악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남성과 여성 들이 부르던 한국 전통 성악 장르임.

남성이 부르는 노래인 남창 26곡, 여성이 부르는 노래인 여창 15곡으로 구성. 남창은 울림이 있고 강하며 깊은 소리가 특징인 반면, 여창은 고음의 가냘픈 소리가 특징. 10박 또는 16박 장단을 사용. 반주로 사용되는 전통 관현악기는 거문고, 대금, 가야금, 피리 등

가곡: 5장형식, 초장, 중여음, 중장, 대여음, 종장- 중여음, 대여음은 기악 반주만 함.

9.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바람의 여신인 영등 할머니와 바다의 신인 용왕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 굿을 여는 사람은 무당이지만 해녀와 선주, 주민들이 모두 참여함.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전통과 주민들의 삶의 모습, 자연관과 신앙심을 모두 담고 있음.

10. 영산제

불교에서 영혼 천도를 위하여 행하는 종교의례. 불교의식

영산제는 석가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의식절차이다. 영산회상을 열어 영혼을 발심시키고, 그에 귀의하게 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산제는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구, 큰 조직체를 위해서도 행한다.

※우리나라의 3대 성악곡

①범패: 불교에서 재를 지낼 때 쓰이는 음악 ②가곡 ③판소리